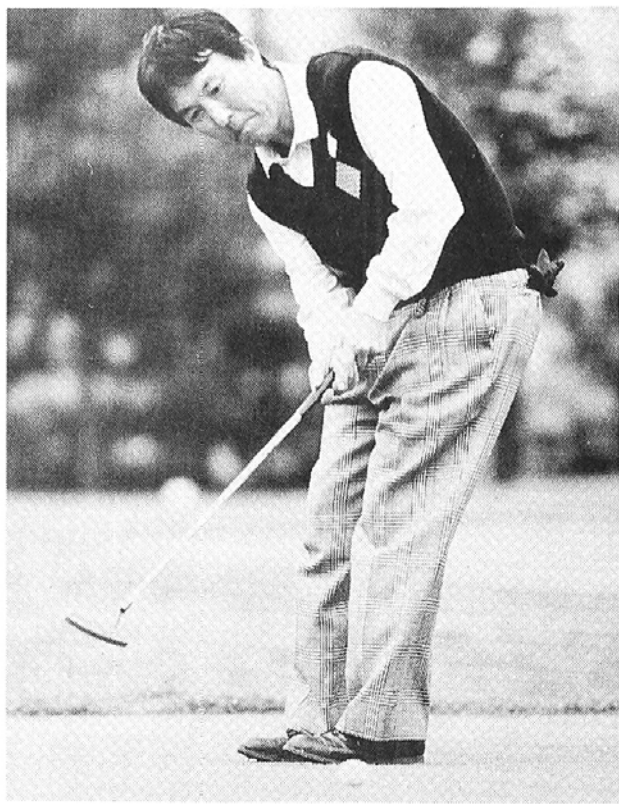


“필드 서면 싸움상대는 자신”

산문박의 禪

프로골퍼 곽홍수 씨



지난해 6월 골프전문잡지 <파골프>는 '41세 노장 곽홍수 5타차 우승패거'란 타이틀과 함께 표지에 그의 마지막 샷 모습을 사진으로 실었다.

프로골퍼 곽홍수. 89년 이후 상금랭킹 10위권 안을 지켜왔고, 일간스포츠 주최 포커리소프 선수권대회를 비롯 챔피언십리조트 동아생명오픈대회 등 굵직한 대회의 우승을 세차례나 차지한 한국골프의 강관급선수다. 따라서 그의 우승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41세의 나이는 놀랍다.

자기 다스림의 연장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지만 골프에서 40대엔 노인층에 간다. 그러나 골프는 몸만으로 하는 운동이 아니다. 자기와의 대면이며, 자기 다스림이다. 물론 4일 연속의 경기를 치뤄야하기 때문에 체력의 뒷받침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체력관리 또한 자기다스림의 연장일

대방이 잘 친다고 긴장하거나, 못 친다고 알보면 열락없이 내가 무너집니다. 선수들간의 기량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마음가짐의 차이죠.”

그의 이말에 골프와 불교와의 낮은 세계는 돌연 돌이 아남을 깨우치게 해준다. 물론 그의 집안대대로 불교와 인연이 살아온 탓도 있지만, 그에게는 골프가 불교를 가르쳤다. 그는 매년 시합 때마다 이를 확인한다. 마치 경전의 한 구절을 듣는 듯하다.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삶이라.”(잡보장경)

프로의 세계는 냉혹하다고 한다. 옛 같지는 승부에 따라 명확한 희비가 뒤따른다. 그보다는 시합에 임하면 2등은 있을 수 없다는 프로세계만의 엄격한 규칙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웃을 때 그의 눈가에 접히는 주름에 기쁨과 좌절의 구비구비가 스며 있다.

“퍼팅 긴장감 무심으로 극복”... 욕심이 승패 결정

뽀이 특별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지만 40의 나이에 들어서며 그도 초조함을 숨길 수 없었다. 후배들의 대일이 돌릴 듯 밀려오는 모습이 자주 떠올랐다.

그렇수록 더욱 불교의 가르침에 귀가 솔깃해진다. 초조함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말한다. 중년의 나이, 되돌아봄이 자연스러울 때에 다다랐으며 앞으로의 삶을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말한다.

요즘 그는 경전을 자주 들은다. 그러면서 한가지 놀라움을 발견한다. 25년 동안 숭한 경기를 치뤄오면서 느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기 때문이다.

아깝게 우승을 놓쳤을 때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샷을 잘못했으면 빨리 잊어버리자, 만회하겠다고 마음 한켠에 실수했던 모습을 털어버어서는 안된다는 생각들, 최종일 우승을 놓고 상대방과 격돌할 때, 이 출에서 실수하면... 어떤 때는 처리리 2등이다 그대 생각되지만, 이는 용납할 수 없다. 그때 가졌던 생각들이 어찌 그리도 똑똑하게 표현되어 있는지...

“다른 운동은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득을 보지만, 골프는 코스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만큼 집중해야 합니다. 상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경기때마다 되뇌이며 마음안정

승부의 세계는 고독하다. 호쾌하게 휘두르는 샷, 보는 이들은 더없이 시원한 장면이다. 그런가하면 마지막 퍼팅의 떨리는 긴장도 보는 이들의 재미를 더해준다. 그러나 이를 일으키는 프로의 세계에선 즐거움이 따르지 않는다. 한 타에 상금의 차이가 전야지처럼 벌어지는 현실이 압박해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상 진실은 한쪽면으로 다가오지 않듯 또다른 일면이 있다. 경기장에서 평소에는 안그렇던 동료들이 손목에 열주를 차고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렇다. 그들이 오히려 경쟁자라는 생각보다 경쟁자이면서 동시에도 반이 될 수 있다는 즐거운 상상이 들 때가 있다며 웃음을 짓는다.

그들이 불자라는 사실이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는 미안한 불자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한다. 결정적

인 순간에 닥쳐서야 부처님을 찾으니 그렇다는 것이다. 자기는 부처님을 부르는 불자이지 부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배푸는 불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배푸는 불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키워가고 있다. 말이 써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그는 생각이 행동이 된다는 말도 믿기 때문에 언제까지 미안한 불자로 머물지는 않을 것이라 는 다짐이 있다.

최연소 프로입문 ‘기록’

골프는 고급스포츠로 알려졌다. 돈있는 사람들의 놀이로 알려졌다. 틀린 말은 아니다. 1~2억을 호가하는 회원권이 있어야 사용예약이 가능하며, 한 번에 최소한 10만원의 경비가 들어간다. 이 정도의 준비가 없으면 즐기기가 어렵다. 이에 대해 그는 할 말이 많다. 중 3때 골프를 시작했지만, 결코 경제적으로

종족해서 이 운동을 했던 것은 아니다. 집 근처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워진, 지금의 어린이대공원 자리에 있었던 서울컨트리클럽이 있었고, 골프치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다. 가까운 친척이 선수생활을 하기도 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다. 중학교 3학년의 나이에 처음으로 골프채를 잡았다. 그리고 골프가 단지 좋아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프로에 입문했다. 최연소 프로 입문이었다. 아직도 이 기록은 깨어지지 않고 있다.

부처님은 골프장에도 계신다. 곽홍수가 찾는 부처님이다. 첫 날 첫 샷이 가장 긴장된다. 무슨 징크스처럼 이때의 긴장이 좋아야 마지막 날까지의 경기가 잘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때의 평행함. 이것의 조율이 승패의 갈림길을 좌우할 때가 있음을 그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부처님을 찾았다. 긴장의 평행함을 풀어주기 위함이다.

“넌은 그린 위에 나 혼자만 서있을 뿐 어떤 움직임도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퍼팅으로 우승의 향배가 갈릴 때, 그때 가져야 할 마음이 무심이었지요.”

정성운 기자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뜻은

문 금강경에 있는 저 유명한 사구계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起心)은 어떤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유영필·울산시 남구 신정동)

답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의 마음을 굳이 말로 한다면 부처님의 마음자리라고 할 수 있지요. 또 우리들이 흔히 마음이라 할 때는 중생심을 말하는 데 한 생각 일어나는 게 모두 중생의 업식(業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숨에 물든 마음이지요. 그러나 비유하자면 맑은 물과 더러운 물의 차이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 내는 게 죄다 구정물이니 이걸 언제 다 맑히겠습니까? 따라서 나는 생각 내기 이전의 마음자리, 말하자면 에너지를 배출해 주는 자기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몰락 맡겨놓고 그대로 행하라고 말해줍니다. 자기뿌리는 만법을 다 행할 수 있으니 중생심으로 따지지 말고 자기뿌리를 굳게 믿고 오로지 믿는 마음으로 몽땅 맡겨 놓고 산다면 그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경지인 것입니다. 그럴때 법과 생활이 돌이 아나게 됩니다.

개? 모습이 돌이 아나게 아니고 마음이 돌이 아니다, 한 염주에 꿰어진 염주알같이 모습은 따로따로지만 한줄에 꿰어 있으니 돌이 아니더라고, 그점을 확실히 알아야 하겠지요. 그렇게 알아야 하는데 알지 못한다면 믿으셔야 하지요. 믿고 실천하는 것도 소중한 일입니다.

경전 읽는 바른 마음은...

문 불교에 입문한지 10년 가까이 됩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많은 경전을 섭렵했고 관련 해설서도 제법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제 스스로 공부에 진전이 있었다고 자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경전을 보아오면서도 늘 불림문자, 일지무설이 생각납니다. 어떤 마음으로 경전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까?
(조인근·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답 나로서는 경전을 봐야 옳다, 안보아야 옳다라고 말할 수 없군요.

왜냐하면 이 오장육부 속도 천차만별로 모습들이 다르고 행도 다르듯이 세상사람들 마음 내는게 천차만별로 다른데 그건 제 그대로 제 생각대로 하는 것이지 누가 보든가 옳다 안보든가 옳다고 말할 성질의 것은 아

지 상 상 탐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신·팩스 보내주시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양사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통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건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남을 ‘부처’로 보자면

문 어떻게해야 상대방을 부처로 볼 수 있습니까? 내가 부처가 되어야 상대가 부처로 보인다하는데 공부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은 말뿐이고 사사건건 습기를 떨쳐버리지 못하니 대인관계에서 비난과 손해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중인·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답 상대가 부처로 보이고 돌아나게 여겨려면 살아서 열반을 해야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자식이 되기도 하고 부모가 되기도 하며 고정된 이름이 없이 이 역할 저 역할을 하는가 하면 인연에 따라서 다른 부모한테 몸을 빌어 태어났다가 어떤 때는 짐승의 자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돌고 돌아보면 서로 부모가 되었다가 자식이 되었다가 형제가 되었다가 했으니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가 아닌 상대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해골무덤에 절을 하셨다는 얘기를 알고 계시겠지요.

아무튼 우리는 한 염주에 염주알이 꿰어 있듯이 그렇게 꿰어져 인연따라 나오는 것이니 ‘야! 이게 모두가 돌이 아니구나!’ 할 수 밖에 없지요.

우리가 한번 죽었다가 깨어나고 깨어났다 가 죽는 도리를 확실히 알고자 지금 마음공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도리를 알지 못하고야 어떻게 나와 상대가 돌이 아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니지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들려드릴 말씀은 경전을 풀어 놓는 것 중에 기록으로써 놓는 게 적지 않은 것 같다는 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공부하면서 때로는 마음계발과 자기점검을 위해 경전을 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보지도 듣지도 못해서 이름을 모른다면 생각도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뭘 먹고 싶은 것은 먹어보았거나 이름이라도 들어 보았기 때문이지요. 그와같이 집집이로써의 경전은 꼭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경전, 어떤 구절을 보더라도 밖으로 의지하거나 복을 비는 내용을 참고하거나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뜻은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경전을 보면서 마음공부에 좋은 참고로 활용한다면 그 경전은 살아있는 경전이 될 터이지만 기록으로 받아들이고 지식을 쌓는 재료로 삼는다면 그 경전은 읽는 그 사람에 의해 죽은 경전이 되고 맙니다. 불림문자니 일지무설이니 하는 말은 바로 그 점에 유의하라는 경쾌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경전의 뜻은 제쳐두고 경전 그 자체를 신성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뜻이 진리로서 소중한 것이지만 책이 소중한 것은 아니지요.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의 생활, 일체의 경계가 그대로 화엄경입니다. 그 속에서 마음을 개발하여 맛을 보고 고집발도의 길을 깨달아야 합니다. 경전은 외우라고 있는 게 아니라 길잡이로서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호흡법과 단전호흡

金日河(홍명) 스님 설법테이프

부처님 호흡법과 단전호흡, 테이프 ①②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불교전통호흡법을 소개하고 호흡과 기(氣)와 마음, 선정의 관계를 밝혔으며 전통적인 단전호흡, 기(氣)수행원리를 밝혔다. 테이프 ③은 전국의 초능력자 수십명을 취재 보도한 바 있는 영남일보 변성석 기자와 대담한 취재 형식의 내용이다. 테이프 ④는 법문을 듣는 수행 청중과 토론한 내용이다.

「전통적인 불교수행법은 어떤 것인가? 단전호흡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기(氣)수행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정통적인가?」

전국 불교 서점에서 구입하십시오. * 아래로 곧 나옵니다.

대웅불교음반 대구시 수성구 수성3가 142-1 (053) 755-9537, 742-4017

카운슬러대학

제21기 입학안내

현대생활에서의 각종 스트레스와 복잡한 인간관계로 갈등을 겪는 현대인의 지친 정신과 마음을 상담을 통해 도움을 주는 카운슬러는 아름다운 「사회봉사직」입니다.

인간성 회복과 도덕성 회복운동에 앞장서는 본원에서는 그 권위와 전통을 인정받고 있는 「카운슬러대학」 제21기 수강생을 모집하여 전문카운슬러와 인간교육 지도자를 양성하여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개 강 : 1996. 3. 14 「1년 전문과정」
- 과 목 : 상담심리, 발달심리,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심리, 인간관계론, 감수성훈련, 교류분석, 정신위생, 상담기법, 심리검사, 위기개입, 부모교육, 상담실습
- 특 전 : 본원 카운슬러자격증 및 수료증 수여
- 과 정 : 정규과정 및 지방거주자를 위한 통신과정
- 접 수 : 원서는 본 대학 교학과에서 배부, 접수(지방우송)
- 문 의 : 본원 카운슬러대학 교학과

☎ (051) 466-5161~2

교육부허가 카운슬러양성기관

사 단 법 인 **한국인간교육원**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7가 78-15 명지 B/D 6층

1996년도 1학기 원효학당 신입생 모집

1996년도 등장(銅章)법사과정<년제>신입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입학 자격 : 불교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분
- 개강일시 : 1996년 3월 12일(화) 10시 30분
- 모집과정 : 등장(銅章)법사 과정 00명
- 전형방법/합격자 통보 : 서류전형/개별통보
- 문 의 처 : 본 학당 사무국 ☎ 3411-6167 ~8

■ 개강과목/시간표

강의과목	교 수	일 시
불교개론(1)	이기영 박사(본원 원장)	매주 화요일 13:30~15:00
장 자(1)		매주 수요일 10:30~12:00
인도불교사	정병조 박사(본원 부원장)	매주 목요일 15:30~17:00
대 학(1)	진성규 박사(중앙대 교수)	매주 금요일 13:30~15:00

*상기 과목 외 2개 과목 수강신청 가능함

◀통신 수강 / 출석수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강의 테이프와 교재를 통해 가정에서 공부하며, 수시로 통신을 통해 담당교수로부터 지도를 받을 수 있음

◀특 전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인 경우 면접을 통해 선발된 자는 수강료 면제함

동서양의 철학사상에서부터 현대의 제반 과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접근을 통해 원효사상의 요체를 현대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석하고 싶도 있는 교과과정을 통해 하나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지성인을 모집합니다.

사 단 법 인 **원 효 학 당**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3동 186-1 개포빌딩 6층 ☎ 3411-6167~8 (지하철 3호선 대치역 ▶개포5단지 경기여고 앞)